

하박국 강해③ “하나님의 섭리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박국 1장 9-12절

9.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 양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홍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11.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 하리라
12.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가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당황스러움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심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일하고 있다. . .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무런 계획이 없이 생각이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 하시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들의 눈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패배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목적과 섭리를 가지고 역사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랐던 기도의 응답과 차이가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심은 선하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이런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망이 나오고 우리들 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실망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삶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사야 55장 8-9절 말씀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나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당신이 지금 일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할지 아십니까?

하박국 1장 10-11절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들의 악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10. 왕들을 멸시하며 - 여기에서 말하는 '멸시'란 조소와 비웃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 후에 그곳의 왕들을 조소하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와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간 사건(왕하 25:7)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백을 조소하며 - '치소'란 조롱거리란 말로, 유다의 방백들(권력가들) 역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모든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던 니느웨도 무너졌고,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견고한 예루살렘 역시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흙'을 쌓아 흉벽을 만들어 모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11.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 '그의 힘 그것이 자기의 신이다'라는 뜻으로 자신들의 힘만 믿고 교만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람같이 굽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 이제 이들은 파죽지세로 몰아쳐 거듭되는 승리로 오만방자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단지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만방자해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의 활동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유다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 신흥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 번 그들의 흉악함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의 악

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은 그것을 저지른 인간의 책임으로 분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신앙의 차원으로 인도하는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위하여 물을 갈아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물고기들이지요, 그러나 물이 썩으면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죽기에, 물을 갈아주려고 그물로 물고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푸드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물고기들이 물을 떠날 때 최대의 위기를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의 주인은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물고기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주인이 어떻게 이 상황을 물고기에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결국 가능한 일 한 가지는, 새로운 물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사 중에 때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고 해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악과 악인들이 변성하고 득세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 3-6절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족지 아니하시리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족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 여호와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음 말씀에서 다루게 될 것이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무서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이 정말 악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뻗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 . .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참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의외'라고 하지요. 오늘은 또 하나의 의외성 즉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강포한 갈대아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의로운 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겠지만,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가 오늘 하박국의 태도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의인의 고난,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라는 것이지요.

지금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평행선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박국의 생각이 아주 다른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한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박국 / 장 17절

17.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위의 본문들은 다 그냥 놔두고, 하박국이 따지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옳으니이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지요.
어떻게 보면 불경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 한다고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의 "Code"가 맞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열심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박국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믿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코드를 맞추어 가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요?” 따져 물으십시오. 결국은 믿음으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섭리 방법의 의외성!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의외로 밖에는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래전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설교 예화로 사용해 달라고. . .)
 한 할머니가 100억대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되었답니다. 은행에서 이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들으면 놀래서 심장마비를 일으킬까봐 주변을 조사해 보았더니 훌쩍단신이더랍니다. 은행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 하던 중, 이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교회 목사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찾아가 만나서 이야기 합니다.
 “할머니, 혹시 100억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물었더니 “그럴 일은 없어요”라고 손을 내 저으시더라고요.
 재차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서, “혹시 누가 알아요, 그래도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목사님께 드릴 테니 교회에서 하나님 일에 쓰세요”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예요?”라고 묻자, “아 그렇게 한다니까요”라고 하면서 정색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할머니, 실은 할머니가 100억 원 복권에 당첨 됐어요. 100억 원이 할머니꺼예요”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할머니 뒤로 갔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면 붙잡아 주려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주 담담하게 “목사님 약속대로 목사님에게 드릴테니 알아서 쓰세요”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함박웃음으로 감사 합니다! 했겠습니까?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는 “감.. .”하다가 심방마비로 죽었답니다.

사실 우리에게 ‘축복’이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만큼이지요. 우리들에게서 ‘믿음의 역사’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만큼이지요.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에는 축복으로 오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전혀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섭리방법의 의외성”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하는 것은 신앙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

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섭리하심이 우리 안에서 아멘으로 고백되기 시작할 때,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결국 지혜자가 본 우리들의 모습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의 뜻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절대로 우리의 경험에 근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멘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너무나 많은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늘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옥표씨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이 다가올 때, 묘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찾아오게 될 알 수 없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기대감’이 없어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갈렙의 나이가 현실에 안주해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어쩌면 그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시고 이미 45년이나 지났으니 말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아직 식지 않은 믿음으로 가슴에 가득 찬 기대감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외로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직은 아니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